

소규모 제조기업의 관내 이전시 변경등록 불가 규제 개선

 추진부서 | 안양시 정책기획과, 기업경제과 ☎ 031-8045-2211

개선배경



- 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제조기업(공장)은 큰 공장과는 달리 같은 지자체 내에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변경등록 항목에 '공장소재지'가 없어 변경등록이 불가능했음. 즉 기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한 후 신규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임. 예를들어 바로 옆 사무실로 이전해도 등록취소 후 신규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이행해야 했음.
- 신규등록으로 처리되면, 등록면허세도 다시 납부해야 하고, 공장등록증상의 공장 운영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기록되어 각종 입찰에서 불리해지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사를 자주하는 중소기업에게 특히 불리한 규제임.

규제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공장등록신청서)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생략)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업종
3. 공장의 증설

회사명, 대표자 성명,
시설면적...

'공장 소재지' 없음

개선내용



개선 전


소규모 제조기업이 관내 이전시 변경등록하지 못 하고 등록취소 후 신규등록해야 함에 따른 다양한 불편 발생



개선 후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2조 개정으로 소규모 제조기업이 관내 이전시 불편 없이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되었음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2조 개정

 **소규모 공장의 변경 등록**
대상 항목에 '공장소재지' 추가

2023. 5. 22.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공장등록신청서)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 (생략)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회사명, 대표자, 성명, 면적...)
 2. 업종
 3. 공장의 증설

4. 공장 소재지 <신설>

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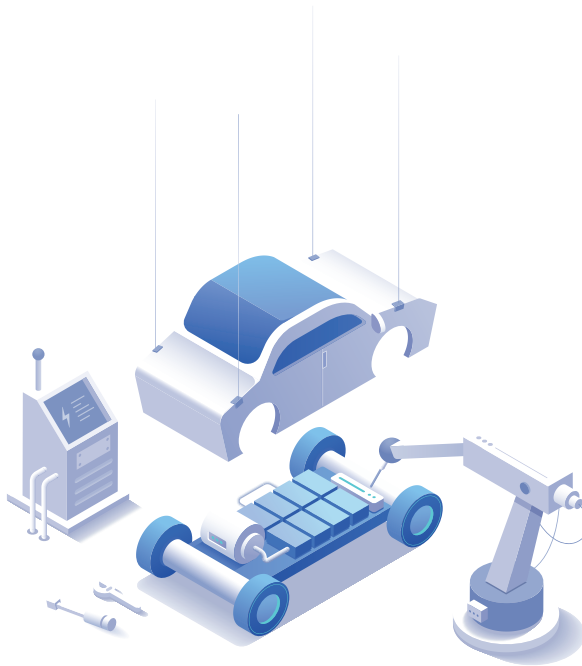


- '19. 4.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 발굴
- '19. 4~'22. 3 중앙부처 건의(6회)와 소통(20회) 추진
- '22. 3. 「안양시-행정안전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개최 등 노력
- '23. 5.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2조 개정

개선효과




- 소규모(500㎡ 미만) 공장의 관내 이전시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로 전국 약 8만 개 소규모 제조기업(공장)의 행정부담이 크게 해소
- 등록면허세 이중납부 방지, 각종 입찰시 중요한 지역 내 기업 운영이력 유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규제혁신의 선도도시, 안양으로 오세요!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 권구현 ☎ 031-8045-2211

안양의 이야기를 대표로 전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시는 4년에 걸친 철전 팔기의 노력으로 기업의 발목에 달린 무거운 모래주머니 같았던 「입지규제」를 해결하여 전국의 중소기업을 살렸습니다.

첫 번째, 융복합 기업의 발목을 잡는 지식산업센터 입지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규제로 인해 자사의 기술을 타 사 제품에 융합한 ‘융복합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 사업을 포기할 위기에 처한 기업의 애로를 발굴한 후 4년의 노력 끝에 2023년 5월 산업집적법 시행 규칙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전국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스마트 시계, 스마트 조명과 같은 융복합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공장의 관내 이전시 주소지 변경등록 불가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바로 옆 사무실로 이전해도 ‘변경등록’하지 못 하고 기존 공장을 등록취소 한 후에 신규 등록하게 됨에 따른 등록면허세 재납부, 공장운영기록 삭제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사를 자주 하는 중소기업에게 특히 불리한 이 규제도 개선했습니다. 이제 전국 소규모 제조기업이 불편 없이 관내에서 변경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양은 명실상부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안양시 규제혁신의 차별성은 무엇일까요? 첫째, 규제혁신에 대한 리더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입니다. 규제개혁은 언제나 최우선 국정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의 추진은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던 기존 규제를 파헤치고 이것에 도전해야 하는 규제혁신은 어디를 가나 ‘불편한 존재’입니다. 여러 곳에서 싫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양은 기초지자체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직원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등 탄탄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이를 동력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국민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규제개혁’을 씩씩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로 추진 환경을 조성해주신 최대호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안양은 규제혁신에 진심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닌 규제개혁팀이 직접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다년간 우수사례를 창출하는 전국 유일 지자체입니다. 안양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걸까요? 규제혁신이 기업과 국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나아가서는 국가를 살리는 절실한 미션이라는 것을 다년간의 성과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난한 규제개선 과정 속에서도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발굴한 규제 개선 건의가 매년 수용되지 못하고 좌절되었으나 끊임없는 기업과의 소통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결국 규제부처로부터 수용의견을 이끌어냈습니다.

감사할 분들이 많습니다. 규제개혁팀의 든든한 네비게이션 정소영 팀장님을 비롯하여 적극행정·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안양시 전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지방규제개혁을 지원해주시는 경기도 규제개혁과에 감사드립니다. 규제 업무는 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치있는 일이라 어려운 것이겠죠? 전국의 규제 업무 담당자분들 응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계시는 전국의 기업을 응원드립니다. 규제혁신의 중심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최고 스마트 혁신도시인 안양이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안양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